

# 宋時烈의 『朱文抄選』 편찬과 그 의미

강 문 식\*

1. 머리말
2. 『朱文抄選』 편찬의 경위와 목적
  - 1) 편찬 경위
  - 2) 편찬 목적과 그 배경
3. 『朱文抄選』의 내용과 특징
  - 1) 『朱文抄選』의 구성
  - 2) 주요 내용과 그 정치적 의미
4. 『朱文抄選』의 활용
5. 맺음말

## 1. 머리말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 학계의 朱子學 연구 동향을 검토하면 하나의 중요한 특징적 흐름이 발견된다. 그것은 朱熹의 저술, 그중에서도 특히 『朱子大全』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정리한 朱子書 選本과 『朱子大全』의 어려운 용어 및 구절들을 해설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주석서가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효시는 1558년(명종 13) 李滉이 편찬한 『朱子書節要』이다.<sup>1)</sup>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학예연구사.

- 1) 『朱子書節要』를 주제로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윤병대, 1980, 「퇴계의 저서와 그 간행—『朱子書節要』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28 ; 유탁일, 2003,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通과 朴光前의 위치」, 『퇴계학과 한국문화』 32 ; 강진석, 2003, 「퇴계 『朱子書節要』 편집의 방법적 특징과 의의」, 『퇴계학보』 113 ; 송희준, 2004, 「『朱子書節要』와 『大東韻府群玉』의 비교 고찰」, 『남명학연구』 17.

『朱子書節要』는 『朱子大全』에 수록된 서간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정리한 選本일 뿐만 아니라, 수록된 서간의 어려운 용어와 구절에 대한 해설이 포함된 주석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경향을 모두 포괄하는 저술이다.

『朱子書節要』 이후 『朱子大全』에 대한 연구는 嶺南學派와 畿湖學派 양쪽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는데,<sup>2)</sup> 그 중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황의 연구를 가장 잘 계승한 이는 바로 宋時烈(1606~1689)이었다. 송시열은 『朱子大全』의 주석서 편찬과 선본 편찬이라는 두 가지 흐름의 연구를 모두 수행했는데, 먼저 주석서 편찬은 『朱子大全』 121권 전체를 주석한 『朱子大全笱疑』로 정리되었다.<sup>3)</sup> 다음으로 선본 편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는데, 하나는 기존의 『朱子大全』 선본들을 종합·정리하여 하나의 책으로 편찬한 것으로 『節酌通編』이 그 결과물이다.<sup>4)</sup> 다른 하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존 선본에서 더욱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별하여 새로운 선본을 편찬한 것이데, 그 결과물이 바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朱文抄選』이다.

『朱文抄選』은 송시열이 1683년(숙종 9)에 경연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朱熹의 저술 중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편찬한 책이다.<sup>5)</sup> 즉, 이 책은 ‘국왕’이라는 특정 대상과 ‘경연’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주자서 선본이었다. 또, 경연에서는 학문적 토론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치 현안도 함께 논의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연 교재인 『朱文抄選』에는 당시의 정치 현실에 관한 편자의 입장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수록된 내용은 주희의 언설이지만 그것을 선별한 이는 송시열이므로, 『朱文抄選』은 곧 송시열의 현실 인식과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바탕 위에서 『朱文抄選』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

2)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朱熹 저술 연구서 편찬에 관한 내용은 柳鐸一, 1990, 『『朱子書節要』 注釋의 맥락과 그 注釋書들—外來文獻의 한국적 수용 II—』 『書誌學研究』 5·6, 6-10면을 참조.

3) 송시열의 『朱子大全笱疑』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강문식, 2008, 『宋時烈의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朱子大全笱疑』·『節酌通編』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43, 73-76면을 참조.

4) 『節酌通編』 편찬 과정에 관한 내용은 강문식, 위의 논문, 84-86면을 참조.

5) 『朱子大全』 부록 권9, 『年譜(8)』

책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朱文抄選』의 편찬 경위와 1683년의 시점에서 송시열이 이 책을 편찬한 목적 및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朱文抄選』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송시열이 강조한 주자학의 주요 내용들과 그것이 당시의 정치 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朱文抄選』이 실제로 경연·서연 등에서 활용됐던 사례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朱文抄選』의 성격과 가치를 유추해볼 것이다.

## 2. 『朱文抄選』 편찬의 경위와 목적

### 1) 편찬 경위

송시열이 『朱文抄選』을 편찬한 것은 1683년(숙종 9) 8월이었다. 당시는 송시열이 1675년부터 진행해 오던 『朱子大全筭疑』의 편찬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른 시기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송시열은 1674년(숙종 즉위년) 甲寅禮訟으로 서인이 실각한 후 이듬해(1675) 1월에 함경도 덕원으로 유배되었다. 송시열은 유배 직후부터 『朱子大全』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朱子大全筭疑』의 초고를 정리하였고, 이를 여러 학자들과 회람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갔다. 『朱子大全筭疑』의 수정·보완 및 교정은 1680년(숙종 6) 庚申換局으로 서인이 재집권하고 송시열이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sup>6)</sup>

1683년 4월 朴世采와 金壽興 등은 숙종에게 송시열이 『朱子大全筭疑』를 편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책을 경연에서 참고할 것을 건의했고, 숙종이 이를 수용하였다.<sup>7)</sup> 이에 송시열은 『朱子大全筭疑』의 감수와 교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그때까지 교정을 마친 『朱子大全筭疑』 중에서 주희의 封事와 奏筭에 대한 筭疑를 따로 정리한 『朱子大全封事奏筭筭疑』를 숙종에게

6) 강문식, 앞의 논문, 73-75면

7) 『朱子大全』 부록 권9, 「年譜(8)」;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4월 8일(경진), 6월 29일(경자).

올렸다.<sup>8)</sup> 이에 숙종은 김수흥의 건의를 따라 송시열에게 『朱子大全』의 주석을 완성하도록 명하였고, 官에서 송시열에게 紙筆墨을 지급하여 『朱子大全筭疑』 편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sup>9)</sup>

이처럼 『朱子大全筭疑』 편찬이 숙종과 조정의 주목을 받게 된 상황에서 송시열은 『朱子大全』을 召對나 夜對의 進講 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다.

금일 경연에서 四書를 이미 끝냈고 이제 六經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험 삼아 召對나 夜對에서 『朱子大全』 중 특히 聖學에 절실한 것을 가려서 筵臣에게 侍讀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 全體·大用이 聖心에 默契됨을 보시어, 政事하는 사이에 補益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sup>10)</sup>

숙종은 위와 같은 송시열은 건의를 수용하여 『朱子大全』의 進講을 준비하도록 홍문관에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경연관들은 “이 책(『朱子大全』)은 卷帙이 너무 많으므로 마땅히 切要한 내용만 가려서 진강해야 할 터인데, 이는 신 등의 고루한 소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봉조하[송시열]에게 물어서 抄擇하게 하소서.”<sup>11)</sup>라고 보고하였다. 경연관들의 보고를 받은 숙종은 송시열에게 史官을 보내 『朱子大全』에서 핵심적인 글을 뽑아서 올리도록 명하였다. 이에 송시열은 李滉의 『朱子書節要』와 鄭經世의 『朱文酌海』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정리해서 홍문관에 전달하였다. 이후 송시열은 선별한 글들과 그에 대한 자신의 논평에 대해 홍문관 관원들과 서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朱文抄選』을 완성하였다.

송시열은 홍문관 관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朱文抄選』의 내용 중 일부를

8) 『朱子大全』 부록 권9, 「年譜(8)」;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6월 29일(경자). 송시열의 『朱子大全封事奏筭筭疑』 편찬에 관한 내용은 정호훈, 2011, 「조선후기 『朱子封事』의 간행과 활용」, 『한국사상사학』 37, 93-97면을 참조.

9) 『朱子大全』 부록 권9, 「年譜(8)」;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7월 22일(신묘).

10) 『朱子大全』 부록 권9, 「年譜(8)」 “今日筵席 四書已訖 而及於六經 試於召對或夜對 擇其大全中尤切於聖學者 使筵臣侍讀 則必見其全體大用默契聖心 而於政事云爲之間 亦有所補益矣.”

11) 위의 글, “筵臣白上以爲 此書卷帙浩穰 當擇其切要者進講 而此非臣等孤陋之見所可爲 請問於奉朝賀抄擇.”

수정하기도 했다. 『朱子大全』 권120에 수록된 「與玉堂諸公」은 『朱文抄選』 편찬과 관련해서 송시열이 홍문관으로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는 송시열이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에서 뽑은 글의 제목과 해당 글에 대한 송시열의 논평이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을 현전 『朱文抄選』과 비교해 보면, 『朱文抄選』에 없는 「答趙致道書(自周子曰至此說得之)」의 제목과 그에 대한 송시열의 논평이 「與玉堂諸公」에는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2)</sup> 이는 아마도 송시열이 당초에는 「答趙致道書」를 『朱文抄選』에 수록하려고 뽑아놓았다가 홍문관과의 논의 과정에서 제외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與玉堂諸公」에는 『朱文抄選』 권1의 「劉共甫」 두 번째 편지에도 “여기에서 物欲이 正大한 氣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人君은 더욱 마땅히 이것으로써 지극한 경계를 삼아야 한다.”<sup>13)</sup> 라는 송시열의 논평이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재의 『朱文抄選』에는 빠져 있다. 이밖에 송시열의 논평 중에는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문구들의 변화, 예를 들어 「與玉堂諸公」에서는 ‘金文正公’이라고 했던 것을 『朱文抄選』에서는 ‘先正臣 文正公 金尙憲’으로 기록하는 등의 변화가 발견된다. 이러한 변화 역시 홍문관 관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송시열이 『朱文抄選』에 수록할 글을 선별할 때 그 대본으로 『朱子大全』 원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이용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송시열이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朱子大全』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송시열은 「朱子大全筭疑序」에서,

退溪李先生이 『朱子大全』에 있는 簡牘을 직접 初出하여 20편을 만든 다음 이름을 『朱子書節要』라고 하였다. 또 『朱子書節要記疑』라는 책을 만들어 중요하면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곳을 풀이하여 蒙士(어린 선비)들을 가르쳤으니, 그 공로가 크다. 그 뒤에 鄭文肅公(鄭經世)이 또 『朱文酌海』 8권을 만들어서 세상에 간행했으니 이는 『朱子書節要』의 右翼이다. 이 두 가지 글을 보면 전날 『朱子大全』을 대할 때 바다를 보는 것처럼 아득한 느낌을 갖던 이도 요약을 말미암아 博覽에 이를 수 있다.<sup>14)</sup>

12) 『朱子大全』 권120, 「與玉堂諸公」, “答趙致道書(自周子曰至此說得之), 此可見天理人欲賓主宗擊之分 所當精察而深體之也.”

13) 위의 글, “與劉共甫書(自領鄂渚), 此可見物欲害其正大之氣 人君尤當以爲至戒也.”

14) 『朱子大全』 권139, 「朱子大全筭疑序」, “退溪李先生 手抄朱子大全簡牘 爲二十篇 名曰朱子

라고 하여,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가 『朱子大全』의 학습으로 나가는 門戶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가 『朱子大全』 연구와 학습에 있어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실제 송시열은 『朱子大全節疑』를 편찬할 때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sup>15)</sup> 그리고 학자들이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책을 하나로 종합·간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節酌通編』이다.<sup>16)</sup> 따라서, 송시열이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대본으로 하여 『朱文抄選』을 편찬한 것 역시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중시했던 그의 학문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편찬 목적과 그 배경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송시열은 “召對나 夜對에서 『朱子大全』 중 특히 聖學에 절실한 것을 가려서 筵臣에게 侍讀하게 하신다면 政事하는 사이에 補益 되는 바가 있을 것”<sup>17)</sup>이라고 하면서 숙종에게 『朱子大全』의 진강을 건의했고, 그 교재로 『朱文抄選』을 편찬했다. 이는 『朱文抄選』이 기본적으로 ‘경연의 교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숙종에게 『주자대전』 중에서 국왕이 꼭 익혀야 할 핵심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朱文抄選』 편찬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83년의 시점에서 송시열이 숙종에게 『朱子大全』 진강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통상적인 경연 교재의 추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683년 당시 송시열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朱文抄選』의 수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송시열의 『朱子大全』 진강 건의에는 통상적인 교재 추천 이상의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먼저 1683년의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송시열이 『朱文抄選』을 편찬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書節要 而又有記疑一冊 以釋其肯綮難解處 以訓蒙士 其功大矣. 其後文肅鄭公 又爲酌海八卷行於世 蓋節要之羽翼也. 看此二書 前日望洋於大全者 可以由約而盡乎博矣.”

15) 강문식, 앞의 논문, 75면.

16) 강문식, 앞의 논문, 84면.

17) 본고의 각주 10번 참조.

1683년은 서인 내에서 노론과 소론이 분립하면서 송시열이 추진한 정책이나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론의 비판·공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당시 송시열에 대한 소론의 비판이 제기되었던 사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태조의 徽號 加上 문제이고, 둘째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척신들에 대한 송시열의 태도 문제였다.

1683년 3월 송시열은 조선의 정통성 천명을 위한 종묘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태조 이성계의 휘호 追上을 건의했는데, 이것이 서인 내부로부터의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였다. 송시열은 태조 이성계의 휘호가 創業垂統의 공렬을 드러내기에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태조의 위화도 회군과 조선왕조 개창이 의리를 밝히고 인륜을 바로잡은 행위임을 의미하는 '昭義正倫' 네 글자를 추상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8)</sup> 그러나 박세채는 태조의 潛邸 시에 있었던 위화도 회군을 이유로 즉위 이후 치적을 상징하는 휘호를 추상하는 것을 불가하며, 또 위화도 회군은 새 왕조 개창의 밑거름일 뿐이고 明에 대한 事大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이는 조선의 정체성을 尊周 의리에서 찾으려 했던 송시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sup>19)</sup>

다음으로, 송시열은 같은 해 5월부터 金萬基·金益勳 등의 광산 김씨 및 金錫靑로 대표되는 청풍 김씨 등 척신들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둘러싸고 소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1680년 경신환국 당시 기찰을 통해 남인들의 동태를 감시했던 김만기·김석주와 1682년 許璽 옥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익훈 등의 행위에 대해 송시열이 '宗社를 보존한 공로'라며 비호하자, 소론 관료들은 이를 '송시열이 훈척에 영합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尹拯이 송시열을 '義利雙行 王霸竝用'이라고 비판한 「辛酉擬書」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송시열과 소론 사이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sup>20)</sup>

이처럼 1683년 전반기에는 송시열의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론의 비판과 공격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송시열의 입장에서 볼

18) 禹景燮, 2005, 『宋時烈的 世道政治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18-319면.

19) 禹景燮, 위의 논문, 322면.

20) 禹景燮, 앞의 논문, 324-326면.

때 대단히 증대한 정치적 위기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특히, 송시열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갑인예송의 패배로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면서 자신 역시 유배를 당했던 8년 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갑인예송 이후 숙종 초반기 남인 정권에서의 역사적 상황은 송시열이 느끼기에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정통의 지위를 인정받던 주자학이 직접적인 배척을 받고 또 淸을 중원의 정통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1)</sup> 송시열은 이와 같은 위기의 원인을 朱子學이 바로 서지 못하고 尹鑣로 대표되는 ‘邪說’이 유행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朱子大全』을 비롯한 주자서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朱子大全筭疑』였다.<sup>22)</sup>

하지만 편찬을 시작한 지 8년여가 지난 1683년까지도 『朱子大全筭疑』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송시열에 대한 소론의 비판·공격은 점점 격화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소론의 중심인물이 바로 송시열이 ‘윤희와 한 몸인 자<sup>23)</sup>’라고 규탄했던 尹拯이라는 점이다. 송시열은 尹宣舉·윤증 부자가 역적 윤희를 도왔기 때문에 斯文이 불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sup>24)</sup> 윤희의 학문적 재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윤선거와 그런 아버지를 옹호하는 윤증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서인이 노·소론으로 분립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소론은 송시열과 노론의 강력한 정적이 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송시열의 입장에서는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한 소론의 공격이 점차 격화되는 1683년의 상황이 윤희와 치열하게 대립했던 갑인예송 당시와 유사하게 느껴졌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노론이 실각하는 또 한 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송시열은, 주자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이 邪說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8년

21) 禹景燮, 앞의 논문, 284면.

22) 禹景燮, 앞의 논문, 336-345면 ; 강문식, 앞의 논문, 94면.

23) 송시열, 『朱子大全』 권131, 雜著 『雜錄』, “今時輩旣譽尹之父子 又稱鑣之賢 則拯雖不與時輩同謀 而其與鑣一體 瞽者皆見之.”

24) 『朱子大全』 부록 권7, 『年譜(6)』



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아 다시 한번 주자학을 통한 위기 극복의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朱文抄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는 사대부 사회 전반에 걸쳐 주자학의 보급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1683년에는 주자학의 학습 대상으로 국왕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송시열이 국왕의 주자학 학습을 강조하게 된 것은 갑인예송 이후 정국 동향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갑인예송 이후 서인의 실각과 남인의 집권, 경신환국을 통한 남인의 실각과 서인의 재집권 등은, 물론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내재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국왕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송시열이 보기에는 국왕이 주자학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邪說에 동조했을 때는 서인이 실각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서인이 다시 집권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노론의 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왕이 邪說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왕이 주자학을 깊이 공부하여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특히 당시 국왕은 바로 갑인예송과 경신환국의 정권 교체를 주도했던 숙종이었다. 따라서 송시열과 노론으로서는 소론의 비판과 공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숙종을 正學[주자학]으로 바르게 보도하지 않으면 왕이 ‘소론의 邪說’에 현혹되어 자신들이 또다시 실각할 수도 있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송시열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경연에서의 『朱子大全』 진강을 주장했다고 생각된다. 즉, 숙종의 주자학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숙종이 소론의 주장에 현혹될 여지를 차단하고 노론의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朱子大全』 진강 건의에 담긴 송시열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숙종이 송시열의 주자학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朱文抄選』 편찬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朱文抄選』이 편찬되기 약 4개월 전인 1683년 4월에 朴世采·金壽興 등이 송시열의 『朱子大全筭疑』 편찬 사실을 숙종에게 알리면서 경연에서 주희의 封事와 奏筭를 진강할 때 이 책을 참고할 것을 건의했고, 숙종이 이를 수용했다.<sup>25)</sup> 또 같은 해 7월 숙종은 김수흥의 건의를 따라 송시열에게 『朱子大全』 주석 작업의 완

25) 『朱子大全』 부록 권9, 『年譜(8)』;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4월 8일(경진).

성을 명했으며, 官에서 송시열에게 紙筆墨을 지급하여 『朱子大全笱疑』 편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sup>26)</sup>

송시열의 입장에서 볼 때, 숙종이 경연에서 주희의 封事와 奏笱를 진강하고 송시열의 『朱子大全笱疑』 편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물질적 지원을 해주던 당시 상황은, 국왕의 『朱子大全』 학습을 강화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송시열은 1683년 10월 尹以健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상께서 朱子書 보기를 좋아하시어서 나에게 교정하여 올리라는 명을 내리셨다. 이는 진실로 聖學이 밝아지고 聖治가 일어나는 基本이 되니 내 마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sup>27)</sup>

라고 하였는데, 이는 숙종이 주자학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시열이 크게 고무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에 송시열은 숙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朱子大全笱疑』의 교정과 감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숙종에게 『朱子大全』에서 국왕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경연에서 진강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숙종이 그 선별의 책임을 송시열에게 부여함으로써 송시열은 주자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숙종에게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朱文抄選』이었다.

### 3. 『朱文抄選』의 내용과 특징

#### 1) 『朱文抄選』의 구성

『朱文抄選』에 수록된 朱熹의 저술은 書 23편, 封事 3편, 奏笱 7편, 議狀 1편, 說 1편, 序 3편 등 총 38편이다. 본서의 서술 방식을 보면, 먼저 주희 저술의 원문을 큰 글씨로 기록하되 원문에 본래 있던 細註들은 생략하였다. 원문을 쓴 다

26) 『朱子大全』 부록 권9, 『年譜(8)』;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7월 22일(신묘).

27) 『朱子大全』 권87. 『答尹體元-癸亥十月十七日』, “聖上喜看朱子書 使賤臣者 校正以進 此實明聖學興聖治之基本 賤臣之心 不勝慶喜.”

음에는 그 글에 대한 송시열 자신의 논평을 雙行細註로 기록했는데, 논평은 주로 서간문에 집중되어 있다.<sup>28)</sup> 『朱文抄選』의 내용 구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朱文抄選』의 내용 구성

책	권	분류	제목	宋時烈 논평	『朱子大全』 편차	『朱子書節要』/ 『朱文酌海』 편차
1	1	書	與魏元履書	-	권24	『朱子書節要』 권1
			與陳侍郎書	-	"	"
			答張敬夫書	-	권25	"
			與留丞相書 (2편)	○	권28	권2
			與趙尙書書	○	권29	"
			答張敬夫	○	권31	권3
			論淵源錄 (2편)	○	권35	권4
			與劉子澄	○	"	"
			答陸子美	○	권36	권5
			答陳同甫 (2편)	○	"	"
			答尤延之	○	권37	권6
			答范伯崇	○	권39	권7
			答林擇之 (2편)	○	권43	권9
			答梁文叔	○	권44	권10
			答潘叔昌	○	권46	권11
			答胡伯逢	○	"	"
	答陳器之	○	권58	권16		
	劉共甫 (2편)	○	별집 권1	권20		
	2	2	封事	壬午應詔封事	○	권11
戊申封事				-	"	"
2	3	封事	己酉擬上封事	-	권12	권2
		奏筭	癸未垂拱奏筭	-	권13	권3
			垂拱奏筭 二	-	"	"
			垂拱奏筭 三	-	"	"
			戊申延和奏筭 五	-	권14	"
			甲寅行宮便殿奏筭 一	-	"	"
			行宮便殿奏筭 二	-	"	"
			經筵留身面陳四事筭子	-	"	"

28) 『朱文抄選』에 수록된 송시열의 논평은 모두 17개인데, 이 중에서 서간문에 대한 논평이 16개이고 나머지 하나는 『壬午應詔封事』에 관한 논평이다.

4	議狀	山陵議狀	-	권15	권4
	說	舜典象刑說	-	권67	권9
	序	戊午謹講序	-	권75	권10
		王梅溪文集序	-	"	"
		丞相李公奏議後序	-	권76	"

## (1) 書 (제1권)

제1권에는 주희가 34세 때인 1163년(송 효종 1)부터 66세 때인 1195년(송 영종 1) 사이에 중앙의 고위 관료 및 동료 학자 등 18명에게 보낸 편지 23편이 수록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시열은 『朱子大全』이 아니라 이황의 『朱子書節要』에서 주희의 편지글을 초출하여 『朱文抄選』에 수록했다. 따라서 주희의 편지 전문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황이 『朱子書節要』에서 축약·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朱文抄選』에 실린 편지들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군주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군주의 학문이 지향해야 할 방향 등 원론적인 내용들을 수록한 편지들이다. 두 번째는 당시 송나라의 정치적 현안에 관해 주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편지들이다. 이 편지들은 주희의 정치사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글로서, 당시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권2·3에 수록된 봉사·주차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희 자신의 평가를 피력한 편지들로, 이 또한 주희의 정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朱文抄選』에 수록된 편지들의 수신자와 작성 시기, 서간의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송시열의 논평 등은 본고 말미의 [부표 1]로 정리하였다.

## (2) 封事·奏筭 (제2·3권)

제2·3권에는 주희가 지은 封事 3편과 奏筭 7편 등 모두 10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sup>29)</sup> 封事는 주희가 1162년(33세)에 새로 즉위한 효종에게 올린 『壬午應詔封事』와 1188년(59세)에 효종에게 올린 『戊申封事』(이상 제2권), 그리고 1189년

29) 『朱文抄選』에 수록된 봉사·주차의 내용 요약은 본고 말미의 [부표 2]를 참조.

(60세)에 새로 즉위한 광종에게 올리려고 준비했다가 결국 올리지는 못했던 「己酉擬上封事」(제3권) 등 3편이다. 원래 『朱子大全』에는 모두 6편의 봉사가 실려 있고 송시열이 초출의 대본으로 삼았던 정경세의 『朱文酌海』에도 6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송시열은 이 중 위의 3편만 선별하여 『朱文抄選』에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주차는 1163년(34세)에 垂拱殿에서 효종에게 올린 「癸未垂拱奏筭」 세 편, 1188년(59세)에 延和殿에서 효종에게 올린 「戊申延和奏筭」 중 다섯 번째 것, 1194년(65세) 寧宗에게 올린 「甲寅行宮便殿奏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그리고 1194년에 경연을 마친 후 영종에게 올린 「經筵留身面陳四事筭子」 등 7편이다. 『朱子大全』에는 권13~14에 모두 29편의 주차가 수록되어 있는데, 정경세는 이 중 17편을 선별하여 『朱文酌海』에 실었으며 송시열은 다시 그 중에서 7편을 뽑아 『朱文抄選』에 수록했다.

주희는 여러 봉사와 주차를 통해 군주가 먼저 학문에 힘써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역설했으며, 또 당시 송나라의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주희의 봉사·주차는 그의 정치사상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조선 학자들에게 많이 읽혀졌으며, 조선후기에는 봉사·주차만 따로 정리한 『朱子封事』가 편찬되기도 했다.<sup>30)</sup> 송시열도 주희의 봉사·주차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이 생각하건대 本朝의 立國은 趙宋과 같기 때문에 그 말류의 폐단 또한 서로 비슷합니다. 國勢의 善弱도 비슷하고 吏胥가 탐욕스럽게 방종하는 것도 비슷하며, 豪強한 자가 맘대로 난폭하게 구는 것도 비슷합니다. 주자는 당시 이런 것들을 직접 보았으므로 말한 바가 매우 절실하고 정성스러워 그 병에 꼭 들어맞는 약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이 약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sup>31)</sup>

즉, 송시열은 주희의 봉사·주차를 조선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으로 규정하면서, 국왕이 이를 숙독하여 항상 마음에 새길 것을 강조하였다. 그가 『朱文抄選』에서 주희의 봉사·주차에 가장 큰 비중을 할애한 것은 바로 이와 같

30) 정호훈, 앞의 논문, 88-89면.

31) 『속증실록』 권14, 속증 9년 6월 29일(경자).

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송시열은 주희의 봉사는 경중의 구분 없이 모두 읽어야 하지만 주차에는 선후·완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주차 중에서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글을 따로 제시하였다.

奏筭에 이르러서는 「行宮便殿」 第2筭인 「論聖學筭」를 가장 먼저 학습하고, 「癸未垂拱」 第1筭·第2筭와 「辛丑延和」 第1筭·第2筭, 「戊申延和」 第5筭 및 「乞進德筭」 등을 순서대로 숙독한 뒤 그 나머지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sup>32)</sup>

위의 내용을 『朱文抄選』에 수록된 주차들과 비교해 보면, 우선 학습 대상으로 제시된 주차 중에서 「行宮便殿」 第2筭와 「癸未垂拱」 第1·2筭, 「戊申延和」 第5筭 등 4편은 『朱文抄選』에 실렸지만 나머지 3편은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3편이 제외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글들이 모두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다른 주차들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3) 기타: 議狀, 說, 序 (제4권)

『朱文抄選』 권4에는 「山陵議狀」, 「舜典象刑說」, 「戊午讜議序」, 「王梅溪文集序」, 「丞相李公奏議後序」 등 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山陵議狀」은 송 효종의 陵을 정하는 일에 관한 주희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고, 「舜典象刑說」은 『書經』 「舜典」에 나오는 刑政의 원칙들을 설명한 글이다. 「戊午讜議序」는 金에 대한 복수의 당위성을 천명한 글이고, 「王梅溪文集序」는 王龜齡의 문집에 대한 서문이며, 「丞相李公奏議後序」는 丞相 李綱이 황제에게 올린 奏議들을 모아 편집한 책에 붙인 후서이다.<sup>33)</sup>

이상 5편의 글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山陵議狀」으로, 효종 英陵의 遷陵 문제로 곤경에 처한 바 있었던 송시열이 산릉에 대한 주희의 이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수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편, 「戊

32) 上同.

33) 『朱文抄選』 권4에 수록된 5편의 글의 내용 요약은 본고 말미의 [부표 2]를 참조.

午讜議序』는 송시열이 현종대에 서필원과의 公義·私義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던 글이다.<sup>34)</sup> 또 『王梅溪文集序』와 『丞相李公奏議後序』에는 왕구령과 이장이 복수 의리에 철저했음을 칭송한 내용이 담겨 있어 송시열의 對淸復讜論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들 역시 송시열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주요 내용과 그 정치적 의미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朱文抄選』은 “『朱子大全』 중에서 더욱 聖學에 절실한 것을 가려서 召對나 夜對에서 진강하자.”는 송시열의 건의에 따라 만들어진 경연 교재였다. 즉, 『朱文抄選』은 『朱子大全』 중에서 ‘聖學에 간절한’ 내용, 곧 송시열이 보기에 국왕이 반드시 체득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엄선하여 정리한 책이다. 그런데 『朱文抄選』에 수록된 글은 朱熹가 지은 것이지만, 그것을 선별하여 편집한 이는 송시열이었다. 또 일부 글에는 송시열의 논평이 추록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朱文抄選』의 내용은 주희가 견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송시열의 학문관과 정치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朱文抄選』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군주의 正心·修身 및 학문 수련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정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송시열은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이 『朱文抄選』 권1에 수록된 『與陳侍郎書』과 『與趙尙書書』이다. 『與陳侍郎書』에서 주희는 講和論, 군주의 獨斷, 國是論 등을 당시 국정의 3대 병폐로 지적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sup>35)</sup> 그리고 『與趙尙書書』에서는 군주의 마음을

34) 현종대 송시열과 서필원의 公義·私義 논쟁에 관해서는 鄭萬祚, 1991, 『朝鮮 顯宗朝의 私義·公義 論爭』 『韓國學論叢』 14, 65-89면의 내용을 참조.

35) 『朱文抄選』 권1, 『與陳侍郎書』, “蓋是三說者不破 則天下之事 無可爲之理 而君心不正 則是三說者 又豈有可破之理哉.”

바르게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를 역설하였다.<sup>36)</sup> 또 『戊申封事』에도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바르게 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sup>37)</sup>

이처럼 송시열이 『朱文抄選』을 통해 국왕의 正心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일견 성리학적 경제관의 일반적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송시열이 1674년 갑인예송 이후 일련의 정치적 부침을 겪는 과정에서 국왕의 판단과 결정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직접 경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송시열은 숙종 초반 자신의 정치적 실패가 주자학을 부정하는 邪說에 국왕이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며, 국왕이 또다시 邪說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朱文抄選』의 위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송시열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송시열은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학문 연마에 힘쓸 것을 제시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송시열은 주희의 주차 중에서 국왕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으로 『行宮便殿奏筭』의 두 번째 것을 꼽았는데, 이 주차의 주된 내용이 바로 군주의 학문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 주희는 영종이 즉위 초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爲學의 道는 窮理가 가장 중요하고 窮理의 요체는 讀書이며 독서는 정밀하게 해야 하고 정밀함을 유지하는 근본은 居敬持志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8)</sup> 따라서 송시열이 이 글을 국왕이 가장 먼저 익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곧 국왕이 正心·修身을 위해 학문에 힘써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朱文抄選』에는 이 글 외에도 『壬午應詔封事』·『己酉擬上封事』 등 국왕의 학문 수

36) 『朱文抄選』 권1, 『與趙尙書書』, “今日之事第一且 是勸得人主 收拾身心 保惜精神 常以天下事爲念 然後可以講磨治道 漸次更張.”

37) 『朱文抄選』 권2, 『戊申封事』, “天下之事 千變萬化 其端無窮 而無一不本於人主之心者 此自然之理也 故人主之心正 則天下之事 無一不出於正 人主之心不正 則天下之事 無一得由於正.”

38) 『朱文抄選』 권3, 『行宮便殿奏筭 二』, “正位之初 未遑它事 而首以博延儒臣討論經藝 爲急先之務……蓋爲學之道 莫先於窮理 窮理之要 必在於讀書 讀書之法 莫貴於循序而致精 而致精之本 則又在於居敬而持志 此不易之理也.”



련을 강조한 글들이 여러 편 실려 있어서 송시열이 이 문제를 매우 중시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송시열은 주희 서간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국왕이 힘써야 할 학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與趙尙書書』의 논평에서는 ‘收拾身心’과 ‘保惜精神’을 각각 ‘存心克己’와 ‘戒色止酒’로 해석하고 이를 人君의 至德·要道로 규정했다.<sup>39)</sup> 『答陸子美』에서는 이 편지에서 논한 無極과 大極이 ‘聖學의 大頭腦處’가 된다고 하였고,<sup>40)</sup> 『答林擇之』에서는 ‘敬’을 聖學의 처음과 끝으로 규정하였다.<sup>41)</sup> 또, 孟子가 性을 仁·義·禮·智의 四端으로 나눈 이유, 四端의 의미와 각각의 관계 등을 설명한 『答陳器之』에 대해서는 “이 글이 性情의 體를 명백히 논파했으니 聖學의 淵源이 여기에 있다.”<sup>42)</sup>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壬午應詔封事』에서는 『大學』의 ‘致知格物’와 ‘正心誠意’을 聖學에서 가장 중요한 大頭腦處라고 주장하였다.<sup>43)</sup>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송시열은 국왕이 주자학의 핵심 이론과 실천 덕목을 깊이 학습할 것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송시열은 “天德과 王道의 요체는 謹獨에 있다.”<sup>44)</sup>거나 “단지 性善만 알고 욕심을 제거하려는 뜻이 없으면 盡性의 도량에 부족함이 있다.”<sup>45)</sup>는 등의 논평을 통해 국왕의 학문은 이론적 습득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송시열은 주자학 학습과 실천을 통한 正心·修身의 달성을 국왕이

39) 『朱文抄選』 권1, 『與趙尙書書』, “(註) 收拾身心 存心克己之謂也 保惜精神 戒色止酒之謂也 此實人君至德要道.” 이하 『朱文抄選』의 내용 중 송시열의 논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한 원문 앞에 ‘(註)’라고 써서 주희가 지은 원문과 구분하도록 하겠다.

40) 『朱文抄選』 권1, 『答陸子美』, “(註) 此書所論無極大極 實聖學大頭腦處.”

41) 『朱文抄選』 권1, 『答林擇之』, “(註) 敬者 實聖學之始終.”

42) 『朱文抄選』 권1, 『答陳器之』, “(註) 此極論性情之體 而明白痛快 少無疑礙 聖學淵源 實在於此.”

43) 『朱文抄選』 권2, 『壬午應詔封事』, “(註) 致知格物者 堯舜所謂精一也 正心誠意者 堯舜所謂執中也 然先生晚年定論則以爲 格物致知精也 誠意正心一也 允執厥中 精一之效也 此實聖學大頭腦處.”

44) 『朱文抄選』 권1, 『答胡伯逢』, “(註) 程子曰 天德王道 其要只在謹獨.”

45) 『朱文抄選』 권1, 『答梁文叔』, “(註) 徒知性善而無此志 則不足以盡性之量.”

체득해야 할 학문의 제1 요소로서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바른 국정 운영의 원칙에 관한 내용은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君子와 小人을 엄격히 분별해서 小人을 물리치고 君子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열은 『答潘叔昌』에서 주희가 군자와 소인을 각각 陽과 陰에 비유하면서 군자와 소인은 서로 조화하는 이치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곳에서 陰陽消長の 이치를 볼 수 있으니, 陽을 북돋우고 陰을 억제하는 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sup>46)</sup>라고 논평함으로써 군자와 소인을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또, 『朱文抄選』에 수록된 封事와 奏劄에도 어진 인재를 大臣으로 등용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한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sup>47)</sup> 이 역시 君子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송시열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군자 등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송시열은 君子黨의 형성 및 이들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朱文抄選』 권1의 『與留丞相書』 중 첫 번째 편지에서 주희는 留正이 朋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우려를 표한 다음, 군자와 소인을 명확히 분별해서 君子를 등용하고 이들이 君子黨을 형성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나아가 군주까지도 군자당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에서도 북송대 신법파와 구법파의 대립을 예로 들면서 군자당 등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논평을 통해 “人君이 미워하는 바로 朋黨보다 심한 것이 없지만, 君子들이 黨을 만드는 것을 미워한다면 나라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sup>48)</sup>라고 하여 군자당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송시열은 같은 논평에서 과거 宣祖가 “나를 李珥와 成渾의 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것을 ‘위대한 말’이라고 평가하면서,<sup>49)</sup> 군주가 군자당의 일원

46) 『朱文抄選』 권1, 『答潘叔昌』, “(註) 此處可見陰陽消長之理矣 其扶陽抑陰之道 可以少緩哉”

47) 『朱文抄選』 권2·3에 있는 『壬午應詔封事』, 『戊申封事』, 『己酉擬上封事』와 『戊申延和奏劄五』 등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48) 『朱文抄選』 권1, 『與留丞相書』, “(註) 人君之所惡 莫甚於朋黨 然惡君子之爲黨 則國必亡”

이 되어야 한다는 주희의 주장을 긍정하였다. 그런데 이 발언에는 주희의 주장을 긍정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宣祖가 지지했던 '李珣와 成渾의 당'이 곧 송시열이 몸담고 있는 서인임을 고려할 때, 송시열의 이 발언은 이미 선대의 왕으로부터 서인이 '君子の黨'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는 비록 失勢하기는 했지만 남인의 재집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여기에 서인 내부에서 소론이 분립하여 송시열 중심의 노론을 공격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송시열의 이 논평에는 서인이 군자당임을 공식화함으로써 서인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노론 역시 군자당이며, 따라서 노론의 집권과 국정 주도권은 군자당이 정권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희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을 국왕에게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청나라에 대한 復讎의 大義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內修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朱文抄選』 전체에 걸쳐서 송시열이 가장 강조한 내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희는 金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主戰論을 주장했던 이들 중 하나였으며, 그의 주장은 『朱文抄選』에 수록된 편지와 봉사·주차 및 기타 저술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주희는, 金은 萬代가 지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나라의 원수이므로 반드시 복수해야 하며, 만약 현재 국력이 약하여 복수할 수 없다면 '自治自強'의 內修에 힘써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송 당시에 유행하던 主和論에 대해서는 이를 '不義한 邪說'로 규정하면서, 국정이 문란해지고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주화론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송시열이 朱熹의 주전론에 관한 글들을 『朱文抄選』에 대거 수록한 것은 주희의 주전론이 송시열의 對淸復讎論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효종대에 송시열은 對淸復讎論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복수의 실현을 위해서 먼저 內修의 실현, 즉 王道政治의 구현과 養民·養兵策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효종의 서거와 함께 송시열이 구상한 北伐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sup>50)</sup> 이후 청은 더욱 강성해져 명나라 遺民들이 세운 南明 정권을 무

49) 위의 글, "(註) 宣祖大王嘗曰 以予爲珣渾之黨可也 大哉之王言 實出於此也."

너뜨리고(1662년) 三藩의 난을 토벌했으며(1681년) 명의 유민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臺灣마저 정벌하였다(1683년). 즉 『朱文抄選』이 편찬된 1683년은 바로 청이 대만 정벌에 성공함으로써 중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던 시점이었다.

송시열이 주희의 주전론 관련 저술들을 『朱文抄選』에 대거 수록된 것은 위와 같은 국제 정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의 중원 장악으로 인해 北伐의 이념이 힘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한 송시열은 『朱文抄選』을 통해 주희가 주장했던 主戰論과 自治自強論을 강조함으로써 對清復讐와 內修外攘이 조선의 對清 정책에서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바람을 피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송시열이 『朱文抄選』을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들과 그 정치적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정리하면 『朱文抄選』은 결국 송시열 자신이 일생동안 주장했던 정치사상의 내용이 투영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송시열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부합하는 주희의 저술을 선별하여 경연의 교재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정치사상을 경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왕에게 관철시키려 했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 점에서 『朱文抄選』은 송시열이 효종에게 자신의 정치사상을 피력했던 「己丑封事」나 「丁酉封事」에 비견될 만큼 정치적 목적성이 매우 강한 저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51)</sup>

#### 4. 『朱文抄選』의 활용

『朱文抄選』은 召對나 夜對의 진강 교재로 편찬된 책이었던 만큼, 이 책의 활

50) 송시열의 對清復讐論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禹景燮, 앞의 논문, 90-119면을 참조.

51)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송시열이 「己丑封事」나 「丁酉封事」처럼 자신의 정치사상을 자신의 말로 직접 제시하지 않고 『朱文抄選』이라는 주자서 選集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송시열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강화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마도 송시열은 자신의 입장을 직접 피력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소론·남인의 반발을 의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말 대신 주희의 언설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희의 권위를 앞세워 소론·남인의 비판을 미연에 차단하면서 국왕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송시열의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용 또한 당초의 편찬 목적과 부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실록을 비롯한 연대기 자료들과 조선후기 경연에서 進講된 책자들을 정리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숙종대부터 영조대까지 소대에서 『朱文抄選』이 진강된 사례들이 몇 차례 확인된다.

앞서 검토했던 것처럼 송시열이 『朱文抄選』을 편찬할 당시 진강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인물은 숙종이었다. 하지만, 연대기나 경연의 진강 책자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숙종 자신이 『朱文抄選』을 강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숙종 자신은 『朱文抄選』을 경연의 교재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대상으로 한 서연에서는 『朱文抄選』 진강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경종은 세자로서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1718년(숙종 44)에 소대에서 『朱文抄選』을 강하였다. 경종에게 『朱文抄選』 진강을 처음 건의한 것은 閔鎭厚였다. 그는 1718년 3월 경종을 면대한 자리에서 이전에 權尙夏가 주희의 奏筭을 진강할 것을 주장했던 일을 상기시킨 다음, 이를 위해 홍문관에 소장되어 있는 『朱文抄選』을 간인해서 진강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여 경종의 재가를 받았다.<sup>52)</sup>

이어 같은 해 7월 文學 柳復明이 上書하여 소대에서 『朱文抄選』을 진강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경종은 소대에서 『資治通鑑綱目』을 강하고 있었는데 진강을 시작하지 7년이 넘었음에도 다 마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sup>53)</sup> 이에 유복명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綱目』 대신 분량이 적으면서도 긴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朱文抄選』을 소대에서 강할 것을 건의하였다.<sup>54)</sup> 상서를 받은 경종은 시강원에 명하여 『朱文抄選』 진강 문제를 사부와 빈객에게 문의한 후 보고하도록 했고,<sup>55)</sup> 그 결과 경종은 1718년 8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17일까지 약 9개월 동안

52) 『肅宗實錄』 권61, 숙종 44년 3월 2일(신해)

53) 『列聖朝繼講冊子次第』(규3236)에는 경종이 1710년 11월 7일부터 소대에서 『資治通鑑綱目』을 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列朝進講冊錄』(규2104) 및 『進講冊子次第』(규5717) 등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따라서 1718년 7월 유복명이 상서를 올릴 당시까지 경종은 약 7년 8개월 동안 『자치통감강목』을 소대에서 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4) 『承政院日記』 제509책, 숙종 44년 7월 19일(병인).

55) 위의 글, “召對時 綱目始爲停輟 先講朱文抄選事 令講院 問于師傅賓客 稟處.”

소대에서 『朱文抄選』을 강하였다.<sup>56)</sup> 하지만, 경종 역시 즉위 이후에는 『朱文抄選』을 진강한 바가 없었다.

영조대에는 국왕을 대상으로 『朱文抄選』이 진강된 사례가 한 차례 확인된다. 영조에게 『朱文抄選』의 진강을 처음 건의했던 이는 閔鎭遠이다. 그는 1733년(영조 9) 2월 영조에게 『朱文抄選』 진강을 권하면서 이 책을 곁에 두고 반복하여 깊이 탐색한다면 반드시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조 역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sup>57)</sup> 그러나 이후의 연대기 자료나 진강 책자를 정리한 자료 등에는 당시 영조가 『朱文抄選』을 진강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민진원의 건의가 실제로 수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영조의 『朱文抄選』 진강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1746년(영조 22)이었다. 이해 12월 26일에 영조는 歡慶殿에서 儒臣들을 만났는데, 이때 영조는 유신들에게 『帝鑑』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당시 홍문관·시강원 등에는 『帝鑑』이 없었으므로 부제학 趙明履가 『帝鑑』 대신 『朱文抄選』을 가지고 들어왔고,<sup>58)</sup> 이에 영조는 입시한 유신들에게 『朱文抄選』을 강하도록 했다.<sup>59)</sup> 즉, 당시 진강은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진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그를 대신한 임시방편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이때의 진강은 「與魏元履書」·「答張敬夫書」·「與留丞相書」·「與趙尙書書」·「答陳同甫」, 등 『朱文抄選』 권1에 수록된 주희의 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無極·太極의 관계,<sup>60)</sup> 內修外攘의 의미,<sup>61)</sup> 君

56) 『列聖朝繼講冊子次第』(규3236), “景宗朝 書筵進講冊子次第……召對進講冊子次第……朱文抄選[戊戌八月十五日 始講 己亥五月十七日 畢講]”

57) 『英祖實錄』 권33, 영조 9년 2월 6일(무오) ; 『承政院日記』 제756책, 영조 9년 2월 6일(무오)

58) 조명리는 이보다 이틀 전인 12월 24일에 歡慶殿에서 영조를 면대했을 때 『朱文抄選』이 聖學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었다[『承政院日記』 제1011책, 영조 22년 12월 24일(을유)]. 따라서 26일에 조명리가 『帝鑑』을 대체할 교재로 『朱文抄選』을 가지고 입시한 것은 영조에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각인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9) 『承政院日記』 제1011책, 영조 22년 12월 26일(정해).

60) 위의 글, “上曰 太極之前有無極 有無極 而太極之理 尤彰著矣. 明履曰 然矣.”

61) 위의 글, “明履曰 孝宗有大用朱子之意 而中道崩殂 悲夫其與張敬夫書 有擔當世道 復讎雪恥之意 而見事論理 不偏一隅 以內修外攘 比諸直內方外 可見其周備精切矣.”

子·小人의 문제<sup>62)</sup> 등이 논의되었다.

영조대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국왕의 『朱文抄選』 진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사례만이 확인될 뿐이고 그마저도 원래부터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영조대 역시 숙종·경종대와 마찬가지로 『朱文抄選』의 주된 진강 대상은 국왕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세자(세손)을 대상으로 한 『朱文抄選』 진강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세자의 경우 연대기나 진강 책자 기록에는 『朱文抄選』 진강 기사가 보이지 않지만, 사도세자와 관련된 주요 사실들이 정리되어 있는 『春坊達辭』(규귀 9902)의 제2책에 『朱文抄選』을 진강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사도세자가 『朱文抄選』을 진강한 것은 그가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인 1762년(영조 38) 4월 26일로, 당시 講官은 文學 邊得讓과 說書 權正忱이었으며, 주희의 『己酉封事』에 대한 진강이 이루어졌다. 사도세자는 『己酉封事』 제5조의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아침과 기도로 복을 얻는 자는 없고, 악을 행하지 않고 바름을 지켰음에도 화를 당하는 자 또한 없다.”는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강관들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얻는 것은 하늘의 항상된 이치”라고 강조한 다음, 주희가 봉사에서 善惡禍福의 설을 제기한 것은 군주로 하여금 修德行政에 더욱 힘쓰도록 면려하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하였다.<sup>63)</sup>

정조는 세손 시절에 두 차례에 걸쳐 『朱文抄選』을 강했던 것이 확인된다. 첫 번째 진강은 1768년(영조 44) 12월에 이루어졌으며,<sup>64)</sup> 두 번째 진강은 1775년 1

62) 위의 글, “明履曰……蓋聖王之世 明明德於天下 使天下之人 皆有以知其性而復其性 則人皆爲君子矣. 故大易有天下皆化爲君子之理 此乃第一義理也. 後世人主 有退君子而用小人者 此無足言矣. 若崇用小人 參以君子 則此倒置也. 若獎用君子 而凶邪小人 斥去勿用 其無顯著罪過 可以爲善 可以爲惡者 使君子善導而參用 則似有革面之效.”

63) 『春坊達辭』(규귀9902), “壬午四月二十六日 文學邊得讓 說書權正忱. 令曰 朱文抄選 己酉封事之中 其五條云 未有不爲善而詔禱得福者也 未有不爲惡而守正得禍者也 其言何耶…… 臣等竊伏以爲 福善禍淫 此天之常理也……朱子所以拈出善惡禍福之說 勉時君以修德行政者也.”

64) 『日省錄』의 1768년(영조 44) 12월 22일과 25일 기사에는 세손이던 정조가 尊賢閣에서 강관들을 접견할 때 『朱文抄選』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한 내용이 실려 있다[『日省錄』 영조 44년 12월 22일, 25일]. 또 『列朝進講冊子』(규2104)와 『進講冊子次第』(규5717)에는 세손 정조가 1768년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소대에서 『朱文抄選』을 강했던 것으로 기록되

월에 시행되었다.<sup>65)</sup> 정조의 『朱文抄選』 진강은 그의 『兩賢傳心錄』 편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兩賢傳心錄』은 정조가 주희와 송시열의 저술 중에서 내용이 서로 조응하는 글을 뽑아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은 모두 8권으로, 주희의 글과 송시열의 글이 각각 4권씩 차지하고 있다.<sup>66)</sup> 정조는 『兩賢傳心錄』에 실린 주희의 글에 대해 ‘송시열이 초출한 것’이라고 하였는데,<sup>67)</sup> 이는 『兩賢傳心錄』이 『朱文抄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편찬되었음을 보여준다.<sup>68)</sup>

『群書標記』의 기록에 따르면 정조가 『兩賢傳心錄』을 처음 편찬한 것은 1774년(영조 50)이었는데,<sup>69)</sup> 이 시기가 정조의 『朱文抄選』 진강이 있었던 1768년과 1775년의 사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정조는 1768년의 진강을 통해 『朱文抄選』의 존재와 그 내용·가치 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兩賢傳心錄』의 편찬을 계획하면서 주희의 글은 『朱文抄選』을 기반으로 정리할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兩賢傳心錄』 편찬이 진행되던 1775년에 다시 한번 『朱文抄選』 진강을 실시함으로써 그 내용이 『兩賢傳心錄』에 포함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숙종~영조대의 『朱文抄選』 진강 사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朱文抄選』 진강은 현재의 국왕보다는 주로 미래의 국왕인 세자나 세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sup>70)</sup> 이는 당시 왕실과 조정에서 『朱文抄選』을 세

어 있다.

65) 『日省錄』에 따르면 정조는 1775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籌賢閣에서 강관들과 함께 『朱文抄選』을 강하였다. 하지만 당시 『朱文抄選』 진강이 3일만에 완료된 것인지 이후 더 지속된 것인지는 관련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日省錄』 영조 51년 1월 9일, 10일, 11일].

66) 김문식, 2000,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 해석사, 251-252면.

67) 김문식, 앞의 책, 252면.

68) 『兩賢傳心錄』에 수록된 주희의 저술과 『朱文抄選』 간의 내용 비교는 김문식, 앞의 책, 252면 참조.

69) 『弘齋全書』 권179, 『群書標記』 御定1, 兩賢傳心錄

70) 현재로서는 조선후기 국왕들이 『朱文抄選』을 경연 교재로 택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朱文抄選』을 대체할 만한 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국왕들이 『朱文抄選』을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대체 교재는 바로 송시열이 편찬한 또 하나의 주자서 선본인 『節齋通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節齋通編』은



자·세손을 위한 주자학의 기초 교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朱文抄選』의 분량이 4권 2책으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세자·세손이 주자학의 기초를 신속하게 학습하기에 적합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맺음말

『朱文抄選』은 1683년(숙종 9)에 송시열이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에서 주요 내용들을 초출하여 편찬한 책이다. 송시열은 이 책을 경연의 교재로 편찬했는데, 여기에는 그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송시열은 자신에 대한 소론의 공격이 격화되던 당시 상황을 甲寅禮訟 이후 자신이 유배되었던 때와 비슷한 위기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연의 주자학 학습을 강화하여 국왕이 다른 邪說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재로 『朱文抄選』을 편찬하였다.

『朱文抄選』에 수록된 글은 주희의 저술이지만 그 글을 선별한 이는 송시열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결국 송시열이 보기에 국왕이 반드시 체득해야 할 주자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朱文抄選』에서 제시된 핵심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만사의 근본이 되는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국왕은 주자학의 핵심 이론과 실천 덕목들을 깊이 연구하고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정 운영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

---

『朱文抄選』의 저본인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하나로 합한 책으로, 『朱文抄選』보다 3년 정도 늦은 1686년(숙종 12) 경에 편찬되었다. 이 책에는 『朱文抄選』의 내용이 모두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주희 저술 중 중요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자학을 보다 폭넓게 학습하기에는 더 적합한 교재였다. 실제로 연대기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숙종~정조대에 국왕의 소대에서 『節酌通編』이 상당히 자주 진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강문식, 앞의 논문, 88-93면]. 이렇게 볼 때, 조선후기 왕실의 주자학 학습에서 『節酌通編』은 국왕의 진강 교재로, 『朱文抄選』은 세자나 세손의 진강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송시열은 君子의 등용과 君子黨의 국정 주도, 淸에 대한 復讎大義 강화 및 그 실질적 방안으로서의 內修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결국 송시열의 정치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朱文抄選』은 朱子書 진강을 통해 자신의 정치사상을 국왕에게 관철시키고자 했던 송시열의 정치적 의도가 투영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朱文抄選』이 실제로 진강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국왕의 소대에서 이 책이 진강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사례가 세자(경종·사도세자)나 세손(정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당시 왕실과 조정에서 이 책을 세자·세손이 주자학의 기초를 학습할 때 이용하기에 적합한 교재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宋時烈, 『朱文抄選』, 經筵, 朱子學, 君子黨, 對淸復讎論

투고일(2013. 8. 11), 심사시작일(2013. 8. 13), 심사완료일(2013. 9. 13)

[부표 1] 『朱文抄選』 권1(서간)의 내용 정리

제목	수신자	작성연대	주요 내용	송시열의 논평
與魏元履書	魏揆之	1163년 (34세)	황제에게 格物致知, 金에 대한 복수, 언로개방 등에 대해 진언했음을 전달. 金과의 講和 주장을 邪說로 규정하여 강력히 비판.	-
與陳侍郎書	陳俊卿 (吏部侍郎)	1165년 (35세)	金과의 講和 주장, 군주의 독단, 金과의 강화를 國是로 규정한 것 등을 국정의 3대 병폐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군주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	-
答張敬夫書	張栻	1170년 (41세)	金에 대한 復讐大義를 분명히 할 것, 복수를 위해 나라의 역량을 키울 것, 소인배들이 정권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촉구.	-
與留丞相書 (2편)	留正(丞相)	1191년 (62세)	君子-小人을 명확히 분별하여 君子黨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군주도 군자당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君子들이 黨을 만드는 것을 미워한다면 나라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주장.
			북송대 신법파-구법파의 대립을 사례로 들면서 봉당, 특히 군자당 등용의 중요성을 역설	-
與趙尙書書	趙汝遇 (吏部尙書)	1192년 (63세)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조여우가 이 책무를 잘 수행해 줄 것을 촉구.	‘存心克己’와 ‘戒色止酒’을 人君이 갖추어야 할 至德·要道로 규정.
答張敬夫	張栻	1175년 (46세)	唐 황제 中宗을 폐위시켜야 했다는 장식의 주장에 대해 증중을 폭군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	주희가 則天武后를 죽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을 ‘事變에 대응하는 權道’라고 평가.
論淵源錄 (2편)	呂祖謙	1179년 (50세)	元豐 연간의 대신들과 정치를 함께 해야 한다고 했던 程明道의 주장을 옹호.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가 궁극에는 큰 오류로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
			송 철종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은 일에 대한 程伊川의 간언은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	-
與劉子澄	劉清之	1178년 (49세)	建安 이후 東漢 사대부의 名節이 퇴락했던 것은 ‘黨錮의 禍’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	世道を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士氣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
答陸子美	陸九韶	1186년 (57세)	『太極圖說』의 ‘無極太極說’과 『西銘』의 ‘乾坤說’에 대한 주희 자신의 견해를 설명.	無極·大極 이론은 聖學의 핵심이며, 『西銘』의 논의는 개인의 사사로움을 타파하는 방도라고 평가

答陳同甫 (2편)	陳亮	1185년 (56세)	三代와 漢·唐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진량의 견해에 대해, 三代 군주들이 전수한 心法에 근거하여 三代와 漢·唐의 차이를 설명. 겉으로 드러난 功利보다 그 일을 행한 동기가 義理에 있는지 利慾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피력.	三代와 漢·唐의 차이는 心術의 隱微한 것에 근본하고 있으므로 聖學은 여기에 더욱 유념하여 밝게 분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答尤延之	尤袤	1186년 (57세)	揚雄과 荀彧의 사례를 들면서, 역사 편찬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양웅과 순옥을 비판한 주희에 대해 “筆法の 엄정함을 보여주었다.”며 높이 평가.
答范伯崇	范念德	1163년 (34세)	춘추시대 衛나라 蒯瞶 부자의 행적을 바탕으로 君臣·父子의 義理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	학문과 인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
答林擇之 (2편)	林用中	1170년 (41세)	程子の 설을 인용하여 敬의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 설명.	敬을 ‘聖學의 처음과 끝’이라고 규정.
		1168년 (39세)	湘江 사람들의 탐욕을 언급하면서 사람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	사람의 욕심을 그 뿌리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
答梁文叔	梁瑒	1184년 (55세)	孟子가 性善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예로 들면서, 일상생활에서 내면의 욕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단지 性善만 알고 욕심을 제거하려는 뜻이 없으면 盡性의 도량에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
答潘叔昌	潘景愈	1184년 (55세)	군자와 소인이 서로 조화하는 이치는 없다고 하면서, 군자·소인을 엄격히 분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군자를 복돋우고 소인을 억제하는 일은 잠시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
答胡伯逢	胡伯逢	1167년 (38세)	군자는 부부생활과 같은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몸가짐을 삼가고 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	‘謹獨’을 중시한 程子가 말을 인용하여 몸가짐을 삼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答陳器之	陳埴	1195년 (66세)	孟子가 性을 仁·義·禮·智의 四端으로 나누어 설명한 이유, 四端의 의미와 각각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	이 편지가 性情의 體를 명백히 논파했으며 聖學의 연원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
劉共甫 (2편)	劉珙	미상	조정에 아첨하며 녹봉만 탐하는 무리들이 가득하다고 비판하면서, 劉珙이 재상으로서 국정 쇄신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	人君이 재해를 만났을 때 修省하는 道와 선생 [朱熹]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지극한 뜻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
			聖賢들이 전수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

[부표 2] 『朱文抄選』 권2~4의 내용 정리

권	제목	작성연대	주요 내용
2	壬午應詔封事	1162년	<p>儒學에 기반한 帝王學 학습, 和議論 척결과 主戰論 확립, 어진 인재의 등용과 조정 기강의 확립 등을 건의</p> <p>* 송시열 논평: ‘致知格物’와 ‘正心誠意’을 聖學에서 가장 중요한 大頭腦處로 규정</p>
	戊申封事	1188년	<p>군주의 마음이 천하의 근본이며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천하만사가 바르게 된다는 점 강조. 이어 당시의 정치 현안으로서 太子를 바르게 輔導할 것, 大臣에 책임자를 임명할 것, 紀綱을 진작시키고 풍속을 교화할 것, 백성들의 힘을 기르고 軍政을 개혁할 것 등을 제시.</p>
3	己酉擬上封事	1189년	<p>광종이 군주로서 실천해야 할 조목 제시-학문에 기초한 正心 실현, 修身齊家の 실천, 충직한 이를 가까이 할 것, 公道의 시행, 迷信 척결, 太子를 바르게 보도할 것, 인재의 등용과 바른 정치 시행, 기강의 진작 풍속 교화, 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기초의 확립 등.</p>
	癸未垂拱奏筭 一	1163년	<p>儒家の 治道는 『大學』에 있고 그 근본은 修身이며 수신에서 출발해야만 治國·平天下의 정당한 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강조.</p>
	垂拱奏筭 二		<p>金과의 和議論의 부당함과 主戰論의 정당성 설명.</p>
	垂拱奏筭 三		<p>內修를 위해 言路를 확대할 것과 언론을 가로막는 측근들을 제거할 것 주장.</p>
	戊申延和奏筭 五	1188년	<p>효종의 치세 27년 동안 국정이 혼란하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효종의 마음이 바르지 않고 인육이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효종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p>
	甲寅行宮便殿奏筭 一	1194년	<p>父君 光宗의 양위로 즉위한 영종에게 선왕에 대한 효를 다할 것과 公論에 의거한 정치를 시행할 것 등을 촉구.</p>
	行宮便殿奏筭 二		<p>즉위 초기의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며, 爲學의 요체는 窮理·讀書이고, 정밀한 독서를 유지하는 근본은 居敬持志에 있음을 강조.</p>
經筵留身面陳四事 筭子	1194년	<p>궁궐 안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태자 때의 규모로 축소할 것, 퇴위한 선왕에게 문안을 부지런히 할 것, 조정의 기강을 확립하여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할 것, 효종의 山陵 문제를 속히 결정할 것 등을 주장.</p>	
4	山陵議狀	1194년	<p>효종 山陵에 관한 조정의 논의가 國帑 이론에만 얽매어 있음을 비판하고, 國帑 이론에서 벗어나 능으로 적합한 땅을 널리 물색하여 선왕에 대한 효를 다할 것을 촉구.</p>

	舜典象刑說		『書經』 「舜典」에 나오는 刑政의 기본 원칙들을 설명하면서 신중하고 공정한 刑政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
	戊午讜議序		나라의 원수는 萬世가 지나도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고 하여 金에 대한 복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金과의 和議를 '不義'로 비판함.
	王梅溪文集序		왕구령을 諸葛亮, 杜甫, 韓愈, 范仲淹에 비견될 만한 명신으로 높이 평가하고, 특히 그가 復讐雪恥를 자신의 임무로 삼아 內修에 힘쓴 사실을 강조.
	丞相李公奏議後序		丞相 李綱이 金과의 講和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主戰論과 自治自強論을 주장한 것을 높이 평가.

<Abstract>

Song Si-yeol(宋時烈)'s compilation of *Jumun chosun*(『朱文抄選』)  
and its political significance

Kang, Moon-shik \*

*Jumun chosun*(『朱文抄選』) is a textbook for royal lecture(經筵) which was compiled by Song Si-yeol(宋時烈) in 1683. At that time Soron(少論)'s political offense to Noron(老論) and Song Si-yeol was intensified. Song Si-yeol thought that it was a serious political crisis and for overcoming this crisis it was positively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of king about the Learning of Zhuxi(朱子學). For this purpose he selected important writings of Zhuxi(朱熹) from *Jujaseo jeolyo*(『朱子書節要』) and *Jumun Jakhai*(『朱文酌海』) and compiled *Jumun chosun*.

Though the writings of *Jumun chosun* were written by Zhuxi, the one who selected and compiled them was Song Si-yeol. It means that the contents of *Jumun chosun* reflected Song Si-yeol's view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ose days. The core arguments of *Jumun chosun* were two. First, the rectification of king's mind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olitics and for this purpose king must study the theories and practical virtues of the Learning of Zhuxi. Second, the government operation lead by the party of exemplary person(君子黨)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theory of revenge on Qing dynasty(對清復讎論) must b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se principles corresponded with Song Si-yeol's political thought and it means that Song Si-yeol wanted to imprint his political thought on king's mind through the learning of *Jumun chosun*.

**Key Words** : Song Si-yeol(宋時烈), *Jumun chosun*(『朱文抄選』), royal lecture(經筵), the Learning of Zhuxi(朱子學), the party of exemplary person(君子黨), the theory of revenge on Qing dynasty(對清復讎論)

\* Curat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NU.